

Christmas worship

Title – “The shepherd's story”

Scripture: Luke 2:8-20

Date preached: December 24th 2023

Scripture: Luke 2:8-20

8 Now there were in the same country shepherds living out in the fields,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 by night. **9** And behold, an angel of the Lord stood before them,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around them, and they were greatly afraid. **10** Then the angel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for behold, I bring you good tidings of great joy which will be to all people. **11** For there is born to you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ur, who is Christ the Lord. **12** And this *will be* the sign to you: You will find a Babe wrapped in swaddling cloths, lying in a manger.”

13 And suddenly there was with the angel a multitude of the heavenly host praising God and saying:

14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goodwill toward men!”

15 So it was, when the angels had gone away from them into heaven, that the shepherds said to one another, “Let us now go to Bethlehem and see this thing that has come to pass, which the Lord has made known to us.” **16** And they came with haste and found Mary and Joseph, and the Babe lying in a manger. **17** Now when they had seen *Him*, they made widely known the saying which was told them concerning this Child. **18** And all those who heard *it* marveled at those things which were told them by the shepherds. **19** But Mary kept all these things and pondered *them* in her heart. **20** Then the shepherds returned, glorifying and praising God for all the things that they had heard and seen, as it was told them.

8 바로 그 부근 들판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9**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그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 주변에 비치었다. 이 광경을 보고 목자들이 몹시 무서워하자 **10**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알린다. **11** 오늘 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12** 그 증거로서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갓난 아기를 볼 것이다.”

13 그러자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14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15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자,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알려 주신 일을 보자” 하며 **16** 달려가 보니 갓난 아기가 구유에 누어 있었고 마리아와 요셉도 함께 있었다. **17** 아기를 본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18** 듣는 사람들이 다 목자들의 말에 놀라는 표정이었으나 **19**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깊이 생각하였다. **20** 목자들은 듣고 본 모든 일이 천사들에게 들은 것과 같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다.

Introduction

Here we are again. Another year has passed. It only seems like a short time ago that I sat down to prepare my last Christmas message. If you were here last year you will remember that we looked at the birth of Jesus Christ through the eyes of the magi. The magi were powerful, rich and influential men. Today we are going to consider how our saviour's arrival impacted an altogether different group of men. The men in today's story were at the opposite end of the social spectrum. A group that was often looked down upon, and frequently despised despite the fact that they performed a

very important job. Our focus then for this Christmas message will be the shepherds.

As you know only two of the four gospels provide us with any details about Jesus birth. If you want to know the circumstances of the arrival on earth of the messiah you will need to look at Matthew and Luke. Luke's record is about three times as long as Matthew's and despite the similarities there are a number of notabl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ccounts.

Sceptics of course point to the differences and claim that they highlight serious contradictions. Because the authors do not agree on all points we therefore cannot trust the bible. This is of course nonsense. We don't expect people's accounts of historic events to match entirely. In fact if they did mesh exactly on every detail we'd find that suspicious. It would seem as if they had colluded. So how can we explain the differences?

Firstly, Matthew and Luke were written by two different men each of whom had a specific target audience in mind. Secondly, and this is connected to the first point, they had slightly differing theological points they wanted to drive home. Thirdly, and finally we should remember that the writers are tackling their subject matter from slightly different viewpoints. Matthew doesn't dwell much on the actual birth and its aftermath. In his account Jesus is born and then Matthew moves quickly on to tell us about the Magi visiting. Luke devotes much more time to what happened prior to the birth and the events surrounding that wonderful night in Bethlehem.

Given this it is natural that they would include different details concerning the birth narrative. However their writing was superintended by the Holy Spirit, who guaranteed that what each wrote was the absolute truth. There are differences, but they can all be harmonized. The narratives of Jesus' birth found in Matthew and Luke are not contradictory but complementary.

It is one of the differences that will be the subject of our study today. We are going to look at the shepherds involvement. As you can see the story of the shepherds is wholly absent from Matthew's account. Before we look at today's passage let me very briefly set the scene.

I'm sure you are very familiar with the birth narrative of the Lord Jesus. You've probably read or heard it preached on many occasions. So I will just provide the highlights here. Chapter 2 of Luke's gospel tells us that during the reign of Caesar Augustus (Roman Emperor from 27 BC to 14 AD) a national census was called for. This meant that all people living under Roman rule were expected to return to their home towns in order to register.

This explains why Joseph and Mary travelled the 80 miles from Nazareth in Galilee to Bethlehem in Judea. They were both of the lineage of David. Actually only the head of the family (Joseph) needed to go but given Mary's condition we can understand why he would have taken her along.

When they arrive in the very small town of Bethlehem they find that there is nowhere for them to stay. As a consequence they are forced to stay in either a stable, a barn, a cave or most likely the downstairs part of a typical Jewish house. Jewish houses of this period had either one or two floors. In a two-storey house the upper floor was where the family lived and slept. The lower floor was where the kitchen was located and where animals were housed.

In a single storey house the downstairs area would have a section portioned off and given over to the animals. Presumably in Mary and Joseph's case the animals were moved to another location to allow Mary to make herself comfortable.

I know that Christmas cards and images in children's books have the infant Jesus surrounded by sheep, donkeys, camels, dogs, cats raccoons and other assorted animals but this is most likely a contemporary fiction.

It is here, in these most modest of circumstances that the Lord of lords, and King of kings came into

this world. Born in this very humble location and laid in a manger or the trough normally used for the animal's food. It is at this point that we will pick up Luke's account.

우리가 여기에 다시 함께합니다.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지난 해 크리스마스 설교를 준비하기 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곳에 오셨다면 우리가 동방박사의 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권력 있고 부유하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구세주의 도착이 완전히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 체계의 반대편 끝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무시되고 멸시되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메시지의 초점은 그 목자들이 될 것입니다.

네 복음서 중 두 복음서만이 예수 탄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상황을 알고 싶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봐야 합니다. 누가의 기록은 마태의 기록보다 약 3 배 정도 길며,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두 기록 사이에는 눈에 띄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회의론자들은 차이점을 지적하며 심각한 모순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 저자들이 모든 요점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설명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모든 세부 사항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공모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각각 특정한 독자를 염두에 두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둘째, 첫 번째 요점과 연결되는데, 그들은 목표하는 신학적인 요점이 약간 달랐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저자들이 약간 다른 관점에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는 실제 탄생과 그 여파에 대해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예수의 탄생 이후에 동방 박사가 방문한 이야기로 빠르게 진행합니다. 누가는 탄생 전에 일어난 일과 베들레헴의 그 놀라운 밤을 둘러싼 사건들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탄생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되었고 그럼으로써 각각의 저자가 쓴 이야기는 절대적인 진실임이 보증되었습니다. 차이점이 있지만 모두 조화를 이룹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 탄생 이야기는 모순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다른 이야기들 중 하나를 살펴볼 것입니다. 목자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기 전에 배경 지식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매우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설교를 여러 번 읽거나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 사항만 제공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 장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로마 황제, BC 27 년부터 AD 14 년까지) 통치 기간 동안에 인구 조사가 실시되었음을 알려 줍니다. 로마 통치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등록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80 마일을 여행한 이유입니다. 둘 다 다윗의 혈통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가장(요셉)만 가야 했지만 마리아의 상태를 고려하면 그가 왜 그녀를 데리고 갔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마구간, 헛간, 동굴 또는 전형적인 유대인 집의 아래층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 시대의 유대인 가옥은 1 층이나 2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2 층집의 위층은 가족이 살고 잠을 자는 곳이었습니다. 아래층은 부엌이 있었고 동물들이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단층집에서는 구역을 나누어서 동물들이 지내도록 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와 요셉의 경우에는 마리아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동물들을 다른 장소로 옮겼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와 동화책의 이미지에 아기 예수가 양, 당나귀, 낙타, 개, 고양이, 너구리 및 기타 다양한 동물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이것은 아마도 오늘날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 곳, 이 가장 겸손한 곳에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아주 초라한 장소에서 태어나 보통 동물의 먹이를 주기 위해 사용되는 여물통이나 구유에 눕혀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누가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8 Now there were in the same country shepherds living out in the fields,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 by night.

Luke takes us from the wonderful scene of Mary and Joseph and the infant Jesus in the manger out into the fields or hills surrounding Bethlehem. We are introduced to the subject of our study today; the shepherds. Today we might have a slightly romanticised view of both this occupation and the men who did it. So allow me to pop your romantic bubble.

Being a shepherd was not an easy or particularly fun occupation. It was a difficult and dangerous job. I found this description outlining the life of a shepherd in Easton's bible dictionary. It's very instructive.

“In early morning he led forth the flock from the fold, marching at its head to the spot where they were to be pastured. Here he watched them all day, taking care that none of the sheep strayed, and if any for a time eluded his watch and wandered away from the rest, seeking diligently till he found and brought it back. In those lands sheep require to be supplied regularly with water; and the shepherd for this purpose has to guide them either to some running stream or to wells dug in the wilderness and furnished with troughs. At night, he brought the flock home to the fold, counting them as they passed under the rod at the door to assure himself that none were missing. Nor did his labours always end with sunset. Often he had to guard the fold through the dark hours from the attack of wild beasts, or the wily attempts of the prowling thief.”

So being a shepherd was not the romantic and carefree existence you imagined.

What about those who felt called or driven to this profession? Surely such a job would attract fine and upstanding men! Well, the people of Jesus' day did not have a good opinion of shepherds in general. There were a couple of reasons for this. Firstly, because they were called to be away out in the fields they could not properly observe the ceremonial laws.

These laws were a very important part of life in Israel. This led to them being looked down upon and often despised.

Also, and of even more significance was the reputation they had of being untrustworthy and often thieves. As they moved from place to place they were prone to take things that belonged to other people. They lived in sense outside of the law and had earned an unsavoury reputation. As a result shepherds were considered to be unreliable and dishonest and were not permitted to give testimony in a law court.

However we should be wary about generalising. We have no reason for thinking that Luke's shepherds were anything other than devout and godly men. After all, why would God have invited

them to participate in the glory of His Son? It is of course highly significant that God first sent the gospel (good news) to the lowly and the despised. Luke in his gospel has a special interest in the lower elements of society. It reminds us that God's free gift of salvation is for all classes of people. It is not limited to the rich and powerful.

So the shepherds were out in the fields watching their flocks at night. In order to protect the flock from thieves or wild animals one of more of the shepherds would need to stand guard whilst the others rested. Every few hours they would rotate.

Many wonder if we can determine when in the year this took place. You may have heard people claim that the flocks were not taken out during the winter months. Is there any truth to this claim? Generally speaking flocks were kept outside in the fields from April to November. However if the weather was mild (Judea frequently enjoyed mild winters) the flocks did stay out during the winter months. Therefore we cannot say with certainty when exactly this took place. It's possible therefore that it was indeed December.

8 바로 그 부근 들판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누가는 우리를 마리아와 요셉,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의 놀라운 장면에서 베들레헴 주변의 들판으로 데려갑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직업과 그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 약간 낭만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의 그 낭만적인 거품을 터뜨려 보겠습니다.

목자가 된다는 것은 쉽거나 특별히 재미있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Easton 은 그의 성경 사전에서 목자의 삶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매우 유익한 정보입니다.

“이른 아침에 목자는 양 떼를 우리에서 데리고 나와 그들이 풀을 뜯을 곳으로 그들 앞에서 이끌었다. 여기에서 그는 하루 종일 양들을 지켜보며 양 떼 중 한 마리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돌보고, 혹시라도 그의 감시를 피해 양떼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길을 잃은 양이 있으면 찾아내어 데려왔다. 그 곳에서 양들에게 정기적으로 물을 공급해야 했고, 이를 위해 목자는 양들을 흐르는 시냇물이나 광야에 파서 구유를 갖춘 우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했다. 밤에는 양떼를 우리로 다시 데리고 오는데 그들이 문간 막대 아래로 지나갈 때 수를 세어 한 마리라도 없어지지 않았는 지 확인했다. 그의 노동이 해가 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들짐승의 공격이나 양을 훔치려는 도둑으로부터 밤 동안 양의 우리를 지켜야 했다.”

그래서 목자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낭만적이고 근심 없는 삶은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직업에 부름을 받거나 이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떨습니까? 확실히 목자라는 직업은 성실하고 건전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입니다! 사실, 예수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목자들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들에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제사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무시당하고 종종 멸시당했습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신뢰할 수 없고 종종 도둑질을 한다는 평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곳 저곳으로 이동할 때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 불미스러운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목자들은 신뢰할 수 없고 부정직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화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들이 독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그분의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낮은 자들과 멀리 받는 자들에게 복음(좋은 소식)을 보내셨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사회의 낮은 계층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부자와 권력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목자들은 밤에 들판에 나가서 양 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둑이나 들짐승으로부터 양 떼를 보호하기 위해 목자 중 한 명 이상이 깨어 망을 보고 나머지 목자들은 쉬었습니다. 몇 시간마다 순서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년 중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사람들이 겨울 동안에는 양 떼를 들판에 내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주장이 맞을까요? 일반적으로 양 떼는 4월부터 11월까지 야외 들판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온화하면(유대에서는 온화한 겨울이 자주 있었습니다) 양 떼는 겨울 동안에도 밖에서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히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2월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9 And behold, an angel of the Lord stood before them,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around them, and they were greatly afraid.

As the shepherds are sitting around a single angel suddenly appeared. Perhaps the shepherds were sitting around a camp fire, or maybe just resting in the darkness. Today living in a city illuminated by street lights we often forget just how dark the countryside can be. So imagine how shocking and scary it would be to have the darkness of that winter night suddenly pierced by a great radiating light. The original Greek when literally translated says that they were "frightened with massive fear." What they were witnessing was a manifestation of God's amazing glory. No wonder these men were greatly afraid. Let us see what message the angel has to deliver to them.

9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그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 주변에 비치었다. 이 광경을 보고 목자들이 몹시 무서워하자

목자들이 둘러앉아 있을 때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은 모닥불 주위에 앉아 있었거나, 아니면 어둠 속에서 쉬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로등이 환하게 켜진 도시에 살면서 우리는 시골이 얼마나 어두울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 겨울 밤의 어둠이 갑자기 찬란한 빛으로 밝혀지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무서웠을 지 상상해 보십시오. 헬라어 원문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들이 “거대한 두려움으로 겁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난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한 것은 당연합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0 Then the angel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for behold, I bring you good tidings of

great joy which will be to all people. 11 For there is born to you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ur, who is Christ the Lord. 12 And this *will be* the sign to you: You will find a Babe wrapped in swaddling cloths, lying in a manger.”

The angel first assures them that there is no need to be afraid. He has come to bring them good tidings, literally good news. It is of course the greatest news ever to be proclaimed. No messenger was ever sent with a greater message than this.

Think for a moment if you will.

What is the greatest concern for human beings? Surely it is that we have an indeterminate amount of time here on earth before we die. Certainly, we might worry about money, poor health or other circumstances but these things pale in importance when compared to the reality of our mortality.

So to be told that a saviour has come. That you no longer have to face the fear of death. What news could bring you greater joy?

The “**all people**” mentioned here refers specifically to the Jewish people but as we know the Jewish Messiah came for all those elected by God for salvation.

The shepherds are told that whilst they were watching their flocks a wonderful event had taken place. In Bethlehem the long awaited and greatly desired messiah had been born. The assumption seems to be that the shepherds will go and seek out this baby for themselves. In order to do this they will need some indicators to help them identify Jesus. After all there may have been several young infants in Bethlehem.

The signs that indicate they have located this special child are twofold. Firstly, that he will be wrapped in swaddling cloth. This was neither strange nor unusual as this practice was done for all newborns. Secondly he would be lying in a manger. This was much more unusual. The feeding place of animals was not commonly where new-born infants were laid. This is especially true for a baby of this importance. A royal palace is where one would normally expect to find a king.

10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알린다. 11 오늘 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12 그 증거로서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갓난 아기를 볼 것이다.”

천사는 먼저 그들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는 그들에게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까지 선포된 가장 위대한 소식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온 적이 없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 땅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불확실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돈, 건강 악화 또는 기타 상황에 대해 걱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죽음이라는 현실과 비교할 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식이 당신에게 더 큰 기쁨을 가져다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언급된 “**모든 백성**”은 구체적으로 유대 민족을 지칭하지만, 유대인인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목자들은 그들이 양 떼를 지키고 있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이 목자들은 직접 가서 그 아기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수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표시가 필요합니다. 베들레헴에는 어린 아기들이 여러 명 있을 테니 말입니다.

이 특별한 아이가 맞다는 표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는 포대기에 싸여 있을 것입니다. 이 관행은 모든 신생아에게 행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그 아이는 구유에 누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동물의 먹이를 주는 곳이 일반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를 두는 곳이 아닙니다. 이처럼 소중한 아기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왕은 일반적으로 왕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13 And suddenly there was with the angel a multitude of the heavenly host praising God and saying: 14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goodwill toward men!”

Suddenly the single angel is joined by a multitude of the heavenly host. The Greek word used here for “multitude” is *plethos* meaning a large number or a crowd. I like the way John Gill describes them in his commentary, he refers to them as the army, or the militia of heaven. Luke is providing us here with a rare glimpse of God's angelic entourage sent to praise and proclaim His glory. I say rare and this is certainly true. Only once before, according to biblical revelation had a human being heard, or seen this kind of angelic praise. Let me take you back to the calling of the prophet Isaiah.

1 In the year that King Uzziah died, I saw the Lord sitting on a throne, high and lifted up, and the train of His robe filled the temple. 2 Above it stood seraphim; each one had six wings: with two he covered his face, with two he covered his feet, and with two he flew. 3 And one cried to another and said:

**“Holy, holy, holy is the LORD of hosts;
The whole earth is full of His glory!”**

(Isa 6:1-3)

On that occasion the angels are praising God the Father as He sits in majestic glory on His throne. Now the angels are again praising God and celebrating the arrival on earth of the second person of the trinity.

Let us consider what it was this angelic host said, proclaimed or laid forth. The primary effect of Jesus' coming on humankind is “peace.” The biblical concept of peace is rooted in the Hebrew word *shalom*. Today, we might think of the word *shalom* and think it is either the equivalent of saying hello or goodbye in Hebrew, or something along the lines of ‘peace be with you.’ There is however much more to the word *shalom*. It actually conveys the idea or notion of being “filled with a complete and perfect peace and well-being.” It is also a way of saying “may health, prosperity, and peace of mind and spirit be upon you.”

So it goes way beyond being just a simple wish for “peace and happiness.” *Shalom* suggests a state of fullness and perfection. This is precisely what those who have rebelled against God (all people) need the most.

The second effect of the Messiah is **goodwill toward men**. The Lord Jesus brings joy, peace and completeness to those it is God's good pleasure to draw to His Son. Those who enjoy God's favour (His grace) will receive this wonderful benefit. So we should not misunderstand what is being said here by the angels. They are not declaring God's benevolence to all humanity, rather they are celebrating His mercy to those who follow His will by accepting His Son.

How will the shepherds respond to this wonderful news?

13 그러자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14**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갑자기 수많은 무리의 하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합류합니다. 여기서 “무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많은 수 또는 군중을 의미하는 플레토스(plethos)입니다. John Gill 이 자신의 논평에서 그들을 군대 또는 하늘의 민병대라고 부릅니다. 누가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선포하기 위해 파견된 하나님의 천사들의 일행을 드물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 이전에 인간이 이런 종류의 천사의 찬양을 들어 본 적이 단 한 번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 옷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 그 위에 스랍들이 섰고; 각각 여섯 개의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3**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찬만하도다!” (사 6:1-3)

이 경우에 천사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에 장엄한 영광 중에 앉아 계실 때 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삼위일체 제 2 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 천군 천사가 무엇을 말하고, 선포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인류에게 오신 일차적인 의도는 “평화”입니다. 평화에 대한 성경적 개념은 히브리어 샬롬(Shalom)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안녕 또는 작별 인사를 하거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이라는 문구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샬롬이라는 단어에는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완벽하고 완전한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을 전달합니다. 이는 또한 “건강과 번영, 마음과 영혼의 평화가 깃들기를”이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평화 shalom 은 단지 “평안과 행복”에 대한 단순한 소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샬롬은 충만함과 완전함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자(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두 번째 의도는 **사람들을 향한 선의 goodwill toward men** 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분의 아들에게로 인도하시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온전함을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은혜)을 누리는 자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이 하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을 받아들이므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분의 자비를 경축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이 놀라운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5 So it was, when the angels had gone away from them into heaven, that the shepherds said to one another, “Let us now go to Bethlehem and see this thing that has come to pass, which the Lord has made known to us.” **16** And they came with haste and found Mary and Joseph,

and the Babe lying in a manger.

The angels having spoken of God's glory return up to the heavenly realm. We assume that they took that amazing brilliant light with them. The shepherds are returned to the quiet darkness of that Judean hillside. Things are as they were before, but in reality everything has changed. They will be unable to go back to the lives and world-view they had before.

Sometimes we speak of momentous historic events as being world changing. The 1941 attack on Pearl harbour, the 9-11 attacks on America, the Covid pandemic and the October 7th attacks on Israel. These are just a few examples and you can probably think of many others. These events changed people's way of thinking, they also to varying degrees altered the course of world history. These events of course fade into insignificance when compared with the greatest event in all of human history. That was the moment when the second person of the trinity took on human flesh and was born in Bethlehem. This was the pivotal moment in all of human existence, an event that forever changed history for all people for all time. So how will the shepherds respond to the angel's message?

How do you suppose many, if not most people would react to this announcement? Most I think would defer. It's late, I'm tired, it's too much trouble to go now. Let's do it in the morning. Isn't that how most people would respond? But not these shepherds. Luke is at pains to point out their haste, the urgency they expressed in wanting to go and find the messiah. They understood that this message had come from the Lord. Therefore they should not delay in seeking out this child. They find Mary and Joseph and the infant Jesus lying in a manger exactly as the angels had told them.

We are left to speculate on how the conversation between the shepherds and Mary and Joseph went. We should remember that a number of other supernatural events had preceded our Saviour's birth. So to learn that angels had sent them would probably not greatly shock or surprise Mary or Joseph. Let us read on and see what the shepherds do next.

15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자,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알려 주신 일을 보자” 하며 **16** 달려가 보니 갓난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었고 마리아와 요셉도 함께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천사들은 하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떠날 때 그 놀랍고 찬란한 빛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유대 산비탈의 고요한 어둠으로 돌아갔습니다. 상황은 예전과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삶과 세계관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중대한 역사적 사건을 세상을 바꾸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1941 년 진주만 공격, 미국에 대한 9-11 테러, 코로나 19 대유행, 10 월 7 일 이스라엘 공격. 이것은 단지 몇 가지 예일 뿐이며 다른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변화시켰고, 또한 세계사의 과정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과 비교하면 무의미해집니다. 삼위일체 제 2 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존재 전체의 중추적인 순간이었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천사의 소식에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소식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부분은 머뭇거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늦었고 피곤해서 지금 가기는 힘들어. 아침에 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목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메시아를 찾으러 가고자 하는 급박함과 서두름을 애써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소식이 하나

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아이를 찾는 일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천사들이 말한 대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를 발견합니다.

목자들과 마리아, 요셉 사이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세주의 탄생 이전에 다른 수많은 초자연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그들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마리아나 요셉은 크게 충격을 받거나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목자들이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7 Now when they had seen *Him*, they made widely known the saying which was told them concerning this Child. 18 And all those who heard *it* marveled at those things which were told them by the shepherds.

After they had seen Jesus what did these men do? Luke tells us that they went back to their flocks and carried on as if nothing had happened. No, this is not what they did. We are told that they went around telling everyone they met what had happened. Simply put these shepherds were the first evangelists. Isn't that an amazing thought. That God in His wisdom would choose this humble, lowly and often despised class of men to be the first to share the good news.

Often Christians will try to excuse themselves from not sharing the gospel by saying they are ill-equipped or not properly trained.

The gospel, such people claim should be spread by trained professionals like pastors, bible teacher and missionaries. People who know what they are doing. In effect its just an excuse. A convenient way of avoiding what we are commanded to do. Let me read you Matthew chapter 28 verse 19.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Matt 28:19)

The shepherds were not trained evangelists. We know nothing about their backgrounds but given their occupation we must imagine that they were not highly trained academics. And yet off they went. What was it they said? They simply reported what they had experienced. They didn't I'm sure provide a deep theological lecture to their hearers. Rather they simply and plainly spoke of what had happened to them. They spoke about their encounter with first an angel and then with the Messiah. They reported how these encounters had changed them. That's all that is required even today.

How was the shepherd's news received? Luke tells us that all who heard marvelled at the news. This is the Greek word *thaumazō*. It means to “wonder” or “to marvel.” All who heard wondered or were amazed. Naturally they didn't really understand it, but they recognized that something significant and important had happened. Let us turn now to Mary. Her reaction was a little different to the shepherds.

17 아기를 본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18 듣는 사람들이 다 목자들의 말에 놀라는 표정이었으나

이 목자들은 예수를 본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누가는 그들이 양떼에게로 돌아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냈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난 모든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목자들은 최초의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생각이 아닌가요? 지혜의 하나님께서는 이 비천하고 신분이 낮으며 멸시받는 부류의 사람들을 선택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사람들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실력이 없거나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했다면서 복음을 나누지 않는 것을 변명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목사, 성경 교사, 선교사 같은 훈련받은 전문가에 의해 전파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사실상 그것은 변명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명령된 일을 피하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28 장 19 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태복음 28:19)

목자들은 훈련받은 전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배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들의 직업을 고려할 때 고도로 훈련된 학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청중들에게 심오한 신학 강의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천사를 만났고 그다음에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만남이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목자들이 전한 소식은 어떻게 받아들여졌나요? 누가는 듣는 사람이 모두 그 소식에 놀랐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헬라어 단어 *thamazō* 이고 '놀라워하다', '기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듣는 사람은 모두 기이해하고 놀랐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것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이제 마리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목자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19 But Mary kept all these things and pondered *them* in her heart.

When we compare Mary's reaction with the shepherds we see an interesting contrast. The shepherds went out boldly proclaiming to all they met the good news. Mary by comparison calmly took it all in and meditated over it in her heart. She sought to understand the deeper meaning or significance of it all. She truly was a remarkable young woman.

As an interesting aside have you ever wondered why Luke focuses so much attention on Mary and her experiences? How for example would he know that Mary pondered these things in her heart? Well, he either received this knowledge through the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 Or else Mary was his source. So did Luke know all these things about Mary because he had spoken to her directly about them? Isn't that a wonderful thought.

Let us conclude our study by looking at verse 20.

19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깊이 생각하였다.

목자들과 마리아의 반응을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이에 비해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침착하게 받아들이고 마음속으로 묵상했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의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훌륭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누가는 왜 마리아와 그녀의 경험에 그토록 많은 관심을 가졌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마리아가 마음속으로 이런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 이 지식을 얻었거나, 아니면 마리아가 그에게 알려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이것에 대해 마리아와 직접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마리아에 관한 이 모든 것을 알았을까요? 정말 멋진 생각이 아닌가요?

20 절을 보면서 연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 Then the shepherds returned, glorifying and praising God for all the things that they had heard and seen, as it was told them.

What a night! A night that these humble lowly men would never forget. Visited first by one angel, then being witness to an army of angels. Then seeking and finding the infant Messiah. It's time now to get back out into the fields. There is work to be done, the sheep need their attention. But these men do not go quietly. As they return they are glorifying and praising God for all that they had seen and heard. Again what lessons we can learn from these simple men?

As we go through our lives we too should be glorifying and praising God. What does this look like in practical terms? Well it means that we should be seen by others as positive and joyful people. We have the good news of the gospel in our hearts. Why shouldn't be walking around moaning or looking glum. We are living witnesses to the goodness of God. Also we should be honest and hard-working as this brings glory to our creator. Additionally we should be actively seeking opportunities to draw people's attention to our awesome God.

Whenever the situation arises we can, and should openly praise Him for all He has done and continues to do. In doing so we bring glory and honour to His name.

And so for another year the Christmas story comes to a close. What a wonderful story it is. Such a shame to only read and be moved by it once a year. Luke's simple and yet profound account is one of the most magnificent we find in all of scripture. Such excellence is befitting of the occasion. The arrival on earth of God Himself. The birth of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May He be glorified this day and forever more.

20 목자들은 듣고 본 모든 일이 천사들에게 들은 것과 같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다.

정말 대단한 밤입니다! 이 낮고 비천한 사람들이 결코 잊지 못할 밤입니다. 한 천사가 그들을 찾아왔고 그 후에 그들은 천사들의 군대를 목격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아기 메시아를 찾으러 갔고 그를 만났습니다. 이제 다시 들관으로 나갈 시간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양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용히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보고 들은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합니다. 이 단순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은 실재적인 생활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즐거운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복음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왜 불평하거나 우울한 표정으로 돌아다니면 안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또한 우리는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정직하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께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상황이 허락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이 지금까지 행하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는 모든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이름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됩니다.

또 한 해의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정말 멋진 이야기입니다. 1년에 단 한 번만 읽고 감동받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누가의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이 기록은 전체 성경의 가장 장엄한 기록 중 하나입니다. 그러한 탁월함은 이 사건에 걸맞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 분께서 오늘 그리고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just one comment to make from today's passage.

Learning from the shepherds

what can we learn from the shepherds? There are I think four important lessons we can learn from the example of the shepherds. I have, for convenience's sake labelled each of them with the letter R.

Receiving Rushing Replaying Rejoicing

Let us consider each in turn.

Receiving

When the angel appeared suddenly the shepherd's were rightfully terrified. Perhaps they would have liked to have fled and hid in a cave somewhere. Maybe they were just transfixed to the spot. Whatever the case they listened and were able to receive the news the angel imparted.

It's vitally important that in whatever situation we find ourselves we are able to put the things of this world to one side so that we can receive what God has for us. How easy it is for us to get distracted by the things around us. God wants to impart His goodness to us through His Word, through preaching, teaching or through those around us. Are we like the shepherd's ready and able to receive it?

Rushing

How did the shepherds respond to the angels news? They made great haste, they rushed to where they were supposed to be. They rushed to be by Christ's side. What an important insight this is for us. How do we respond to calls for our time or attention? When the church needs our help do we make great haste? Do we rush as quickly as we can? Or are we slow to react? Do we secretly hope that if we delay someone else might do what's needed before us? Let us then be defined as people who are rushing always to be at Christ's side.

Replaying

Once the shepherds had seen the Lord Jesus what did they do? As we saw they went around telling everyone their experiences. They did not care what people thought of them or whether people laughed at them behind their backs. All they desired was to share the good news. We should learn from their example. As Christ's followers we should be telling all we meet about the good news. We do not need to concern ourselves with how professional or polished we are. The straight simple truth is sufficient. Our job is to say it, and then allow God to do the rest.

Rejoicing

Finally we saw how the good news impacted these men. They went back into the fields, back to work praising and rejoicing God. They lifted Him up in their praise and worship. They did not allow their mundane daily duties to distract them from their worship. They did not permit the burdens of

daily chores to mute their joy. Let us learn from their example. No matter how our lives go let us delight in praising God and rejoicing in all He has done.

오늘 본문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목자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목자들의 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네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상 각각의 문자에 R이라는 라벨을 붙였습니다.

Receiving 받기

Rushing 서두르기

Replaying 재생하기

Rejoicing 기뻐하기

이것들을 차례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Receiving 받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을 때 목자들은 당연히 겁을 먹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도망쳐 어딘가에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 자리에 달라붙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그들은 천사가 전한 소식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의 것들을 한쪽으로 치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것들로 인해 주의가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설교, 가르침 또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목자들 처럼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Rushing 서두르기

목자들은 천사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서둘러서 가야 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곁에 있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까? 우리의 시간이나 관심이 요구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교회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서두릅니까? 우리는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서두르나요? 아니면 느리게 반응하나요? 우리가 지체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먼저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기를 은밀히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곁에 있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됩시다.

Replaying 재생하기

목자들은 주 예수님을 본 후에 무엇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돌아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뒤에서 자신들을 비웃는지 여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범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로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전문적이거나 세련된 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하고 단순한 진실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말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Rejoicing 기뻐하기

우리는 좋은 소식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다시 들판으로 일하러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찬양과 경배로 그분을 높였습니다. 그들의 일상적인 일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해

야 하는 일의 부담때문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로부터 배워 봅시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기뻐하십시오.